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2월 10일 (제98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이분법적 사고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모든 사물이나 생각 등의 대상을 옳고 그름, 정상과 비정상 등, 이렇게 두 부류로만 구분하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한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다양성을 무시한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흑백논리라고 부르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너무 획일화된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총천연색 TV를 두고 흑백 TV를 보는 것과 같다. 거기에는 창의력이 없고, 토론의 여지도 없는 답답한 사고다.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이 이분법적 사고는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꼭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 법 안에서다. 하나님의 법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상이나 벌이나, 축복이나 저주나, 빛이나 어두움이나다. 하나님의 말씀에 Yes냐, 아니면 No냐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중간은 없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다. 회색분자, 양다리 걸친 자, 다시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싫어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5~16)는 말씀은 그분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확실히 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온다. 송아지는 엄마 소 닮는 법이니까.

세상은 융통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추구한다. 그래야 탈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신앙에는 타협도 없고, 어중간도 없다. 결국 하나, 영생이나 영벌이나다. 적당히 신앙 생활하는 자나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사는 자는 장담컨대 다리 찢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신앙은 취미나 교양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신앙은 어떤가? 지금 점검하라. 그날 주님은 이분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곧은 뿌리가 나무를 지탱한다

지난 2013년 여름, 멕시코(Mexico) 타바스코(Tabasco)주 마쿠스파나(Macuspana) 집회 중에 주정부의 초청으로 히메네스(Gimenez) 주지사 공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히메네스 주지사의 고민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었다. 이 노(老)정책은 이 문제를 어찌 풀어야 할지 몹시 난감해하는 것 같았다. 목사님은 주지사와 참모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나무를 지탱하는 것은 곧은 뿌리이지만, 그 곧은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잔뿌리입니다. 잔뿌리들이 썩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곧은 뿌리마저 무너져 나무 전체가 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썩은 잔뿌리는 속히 잘라내는 것이 나무를

자기 계발에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더 나은 통역관으로 당장 교체합니다. 왜냐? 그것이 남미 선교라고 하는 나무를 잘 키워가는 길이고, 내가 모시는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제자들에게도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눈이 썩었냐? 뼈 버리라는 겁니다. 팔, 다리가 썩었냐?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궁극적 목적인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타바스코주가 살기 위해서 지사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시행해야 할 일입니다."

당시 주위에 배석해있던 참모들의 낯빛

지도 세세하게 쟁기고 점검하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신다.

본부 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때나 지방 순회에 동행하며 지켜본 목사님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 항구여일한 자세로 임하시는 분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목회현장보다 먼저 건강을 챙기라고 배려하시고, 혹여나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가 있다면 불원천리(不遠千里)라도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주려 모든 성경지식과 하늘의 지혜를 총동원하신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어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갈지라도, 밤을 새서라도 그 영



타바스코주 공관에서 히메네스 주지사 및 참모들과 함께(2013년 7월)

살리는 길입니다. 썩은 뿌리에 자꾸 물을 줘야 더 썩게 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지사님은 이 조직의 곧은 뿌리로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위의 잔뿌리, 곧 참모들이 지사님의 철학을 잘 받들어 지사님도 정을 잘 펼치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모으고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타바스코주의 도정이 탄탄하게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잔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복지부동에 빠져 나태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도 정을 망치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내 말을 통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가 실력이 없고

은 어두워졌으나 히메네스 주지사의 열정은 아주 밝게 빛났던 기억이 난다. 이 점을 생각하면 늘 목사님께 죄송스런 마음뿐이다. 곧은 뿌리인 목사님께 잔뿌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늘 목사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니 말이다.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동력공급원이다. 잠시도 자가발전을 멈추지 않는 발전소처럼 말이다. 물론 그 원동력은 잘 알다시피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늘의 지혜를 끌어내리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몰입하는 정신과 자세로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극히 사소한 부분까

혼을 살리는 일에 혼신을 다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에 모든 피로를 잊는, 그것이 양식이 되는 삶을 목회 34년 내내 수행하고 계신 것이다.

곧은 뿌리로서 예수중심교단이라는 나무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해 교단의 모든 교역자, 재직,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 말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날에 목사님과 함께 받을 상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오늘도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폰에서 울린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9~20)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

인류 최대의 적(敵)은 병입니다. 천하 영광을 쥐고도 병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느 대기업 총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와 일류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통 먹지를 못하기에 왜 그런가 물었더니 병이 들어 그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면 뭐하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앞에 두고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산다.'고 예수를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병들면 만사가 무익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8:36~37)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적을 잡으면 평안이 오고 간첩을 잡으면 평화가 온다

그렇다면 인류 최대의 적인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만 안다면 문제해결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병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따지면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인은 딱 하나, 귀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은 마귀의 종개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병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해 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눅4:40~4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당대 최고의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니 해질녘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손을 얹어 귀신을 쫓으니 그것들이 떠나고 나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병인데 치료방법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라"(마8:16). 누가는 '각색병'으로 표현한 것을 마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곧 각색병의 원인이 다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각색병, 즉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감기부터 암 같은 불치병까지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소경이 된 것도(마9), 간질도(마17), 정신병도(막1), 중풍병도(눅13) 귀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가서 보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병의 원인은 따지지 않고 열병

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눅4:38~39). 병은 무인격체인데 어떻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또 병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인격체인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마태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병의 원인이 귀신임을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무려 104번이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전과 외에



총회장 이초석 목사

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막3:15).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고, 집사 신분인 빌립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행8:5~8).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전매특허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목사라서 특별히 주신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분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권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고(행3),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켰으며,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온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며(요17:11~12),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임을 밝혀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이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요1:12)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빌2:9~10). 그런데 왜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

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2~23)는 말씀을 가지고 덤비는데,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돈 받고 병을 고친다든지, 돈 받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능과 복음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권능이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이니 불법 아닙니까?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훼방죄를 짓지 마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百戰百勝)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로마병정의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와 병과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습니(고후8:9).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권리도, 가난해야 할 권리도, 불행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와 병과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며, 이는 성령을 소멸한 결과입니다. 빛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두움을 주관하는 존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자 악한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몸을 집삼아 살던 귀신들은(마12:44) 예수 이름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요, 특권입니다(막1:27). 목회 34년, 저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임하게 하십시오(마12:2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용달생 ::

예수님 따라가기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미비아의 사막 지대에 달러부시(dollar bush)라는 관목이 살고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이 원형이고 잎이 마르면 1달러짜리 동전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달러부시는 주로 자갈밭이나 모래밭에서 홀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무더운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서 카멜레온 등 수많은 작은 생물들을 나무아래에 보호하고, 쌀쌀한 밤에는 잎과 가지의 온도차로 이슬을 맺어 나무아래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합니다.

잎은 짙어 많아서 자신을 희생하면 사막의 생물들에게는 또 다른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달러부시는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지만, 심지어는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수많은 생물들에게는 안식처가 되고 생명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이렇지 않을까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버리기를 원하며 당신의 분노를 결코 영원히 간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은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채찍질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우리가 흠 없고 거룩하게 보존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삶 전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폭적으로 당신에게 바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낮은 자로서의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고난을 받아도 극복하며, 필요할 때에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실천 항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아니며, 우리 또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고전 13:3).

Dr. 이관섭 장로

공격형 신앙

전쟁을 할 때나 경기를 할 때 수비 위주로 하면 절대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축구를 할 때 수비형으로 하면 상대가 득점하지 못하게 해서 동점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도 수비형으로는 악한 마귀와 악의 영, 귀신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공격형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들고 공격해야 합니다.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공격을 해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축복도 공격형이 되어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침노’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새가 어느 새끼에게 먼저 먹이를 주는 지 잘 보세요. 덤빌 듯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먼저 줍니다.

공격형 인간은 ‘성취형 인간’을 말하고, 수비형 인간은 ‘예비용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비용 인간은 실수하지는 않겠지만 창조나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공격형 인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괜히 덤비고, 시비 걸고,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끄끙 앓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배려도 먼저, 용서도 먼저, 이해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019년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을 삽시다. 하나님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고, 적극적인 반응을 취하심을 잊지 맙시다.

예수중심편집실



:: 세상을 보는 창 ::

:: 삶이 있는 이야기 ::

신앙의 회복 탄력성 키우기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깨끗하게 다시 튀어 오르는 능력’이다. 나무로 만든 공은 탄성이 약해서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지 못한다. 우리로 만든 공은 바닥에서 깨어져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나 탄성이 강한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을 치고 더 높이 튀어 오르듯이, 갑작스런 인생 역경으로 인해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있다. 이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회복탄력성이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회복탄력성이 요구된다. 길가의 꽃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한순간 꺾이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동체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험을 적어도 몇 번은 반복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허들 앞에서 헉헉거리며 넘어질 것인가? 가쁜히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어서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인생의 허들을 가쁜히 뛰어넘는 힘은 회복탄력성에 있다고 말하기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신앙의 회복탄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회복탄력성을 만들어갈 능력이 없다. 다만 키워나갈 뿐이다.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 먼저,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늘 나라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협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를 수없이 당했어도 다시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회복탄력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죄 가운데 쓰러진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옷을 찢고 간절히 회개하며 다시 그 믿음을 회복했다.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의 죄 가운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 와르르 무너져버렸다. 다윗은 회복탄력성이 강한 농구공 같은 사람이었다면, 사울왕은 회복탄력성이 약한 유리공 같은 사람이었다.

2019년에는 사도 바울과 다윗처럼 신앙의 회복탄력성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무화과 반죽

“이사가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왕하20:7). 병에 걸려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장면이다. 그의 병이 암이었던지 종창이었던지 알 수 없지만 당연히 무화과가 명약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장 특효약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여 누군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그의 병을 낫게 했을까. 그는 죽음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력, 재력, 인재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등지고 오직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애통하여 기도했다.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무화과 반죽을 생각한다. 우리는 당장 해결책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차분하고 진실된 대화를 원하신다. 대화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일단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신다. 사람, 돈, 일, 나 자신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힘겹게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나면, 내가 보이지

않게 의지하는 대상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이 과정은 끝없는 터널 같아서 믿음의 등불만 들고 가기엔 힘에 겨워 때론 불평을 쏟아놓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을 불드셔서 터널을 통과하도록 끌어주신 후에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신다. 비로소 무화과 반죽을 받은 것 같은 확신과 기쁨을 갖는다. 이 때 하나님은 세상 무엇이든 들어서 쓰신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때론 무모하고 고집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화과 반죽이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허락하심을 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저울질하고 계신다. 지금 손에 쥔 무화과 반죽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것이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사 38:5).

이호은 사모

:: 내가 매일 기쁘게 ::

:: 빛이 되리라 ::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하여도

요즘 베트남에서 최고 인기 있는 한국 사 랫마 있다. 그는 바로 '쌀딩크'. 베트남 축 구대표팀 감독 박항서이다. 박항서 감독 이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감독으로 부임 한 뒤에 베트남은 작년 한 해에만 여러 가 지 기록을 새롭게 썼다. 베트남 축구 역사 상 처음으로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하였고, 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12월에는 2018 아세안축구연맹 스프링컵 결승에 서 우승을 차지하며 멋진 한해의 마무리 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며칠 전, 10여 년 만에 아시안컵 8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 사를 멋지게 장식하였다. 이로 인해 베트 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가고 있으며, 그 열기 또한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베트남에서 연일 전 해져 오는 이 '박항서 매직'은 다름 아닌 기도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선교가 쉽지

않은 나라 중의 한 곳이다. 하지만 경기 시작 전후에 기도하는 박항서 감독의 모 습이 현지 TV에 그대로 송출되면서 그어 떤 선교보다 더 효과적으로 베트남 국민 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거기 에 덧붙여 선수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존 중하며 언제나 겸손한 그의 모습을 보고 는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이 기독교인이냐 고 묻는다고 한다. 절실한 크리스천이라 고 이야기하면 물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어쩐지...'라고 수긍한다. 비행기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 먼 나라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은 자신에게 주어 진 임무를 최대치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박항서 감독의 기도 하는 모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장 소가 어디이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 인 한결같은 자세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 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 성경 속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때와 장

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처럼, 박항서 감독도 자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이고 그 때가 언제이든지 진실로 주 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항서 감독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그 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어쩐지...'라고 수긍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 늘도 나를 돌아본다. 내가 언제 어떤 장소 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곳이 어디더라도 나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향 한 사랑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큰 자 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라'는 목사님 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나의 행동과 말 이 곧 크리스천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 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살고 싶다.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속한곳에서 복을 받자

청·장년부를 섬기는 임원으로서 회원들 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다른 곳에서 복 받을 일을 찾기보다 우선 본인이 섬 기고 있는 이 부서에서 먼저 복을 받자." 라고 말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더 많은 작은 부서 들이 있을 것이다. 각각의 부서들이 그 부서의 역할을 잘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겠지만,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지체들 입장에서 보 면 아주 간단한 한 진리가 있다. 바로 하 나님이 이 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고 계 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지 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직 분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 직분을 통해서 더 많은 할 일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렇 게 기도는 하면서 막상 직분을 받기는 주 저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 어떻 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부서나 교구에도 속해있지 않다면 무리에서 떨어진 양 같 이 포식자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 혼 자만의 신앙생활, 우리 가족만의 신앙생 활보다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단합하고 섬기며 모이기에 힘쓰면 삼겹살처럼 쉽 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꼭 어느 부서나 교구에 속해 있으면서 그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일들을 헌 신과 사랑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미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 그 안에 계 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부서를 만드 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생각에 따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실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즐 상이 내 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 아 주리라"(계22:12).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Good News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박물관에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조각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에 이상하게 생긴 동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머리는 무성한 장발이고 뒷머 리는 문어처럼 대머리이고 양발 뒤꿈치 에는 날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 신상의 이름은 '기회의 신'인데, 앞머 리가 무성하고 뒤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 은, 기회는 다가왔을 때 잡아가지 지나가

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뜻이며, 발꿈치 에 날개가 달린 것은 빨리 지나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매한 인생의 착각 중에 하나는 인생이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 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 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지 나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엇그제 같았 는데 날아온 것처럼 빨리 지나왔음을 실 감하게 됩니다.

짧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 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 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할 일 이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누구 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고 천 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 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희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포기하지 않으면 못 이룰 꿈은 없다

If you don't give up, your dream will come true.
若不抛弃,就没有不能成就的梦想。

☞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A dreamer never gets old.
有梦想的人不会衰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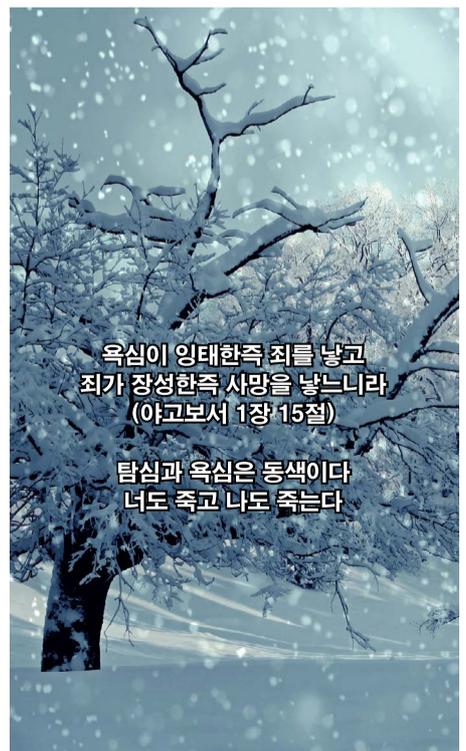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난 번, 어 떤 문제를 놓고 '주님 이라면 어 떻게 하셨을 까?'라고 생 각할 때 성 령님의 조명 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고방식이 야말로 바울이 말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 (딤후4:7-8) 중 으뜸이요, 이 같은 훈련 이 주는 유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 셧을까?' 생각하는 것은 평소 성경과 기 도를 통해 항상, 어느 때나 성령님께 작 은 것 하나라도 묻고 응답받기에 그렇습 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 셧을

까?' 생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과 이 웃에게도 가장 큰 유익을 주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 셧을 까?' 생각하는 것은 일평생 가장 가치 있 는 일, 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 라보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며 닮고 본 받기로 다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품성과 마음과 지혜와 권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 셧을 까?' 생각하는 자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막12:30)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 셧을 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베후3:14)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님의 완전한 양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 셧을 까?'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맞추다보면 그것이 어느 새 습관 이 되고, 그 습관이 자신의 미래(운명)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 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삶의 목표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 셧을 까?'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기 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성령님께 묻고 응답받는 삶, 예수중심으로 사는 삶 을 생활화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딸들로 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예 수님 이름으로 간구 드립니다. 예수중심 교단과 교회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 도합니다.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 동남아지부장 풀킴 목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탐심과 욕심은 동생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